

“강력 규제로 카지노 대형화 막아야”

제주도내 카지노 면적 최초 허가면적보다 갑절 늘어
이상봉 “장소변경시 신규허가 받도록 조례 개정을”
원희룡 “도지사 권한으로 가능한지 법률 검토 필요”

카지노 영업장소 소재지를 이전할 경우 변경허가가 아닌 신규허가를 받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제주도지사 권한으로 카지노 대형화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을)은 7일 제36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강력한 규제로 도내 카지노 대형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8개 카지노의 면적은 초기 허가면적보다 갑절 이상 확대됐다. 제주도내 8개 카지노의 초기 허가면적은 8721㎡였으나 현재 허가면적은 2만442㎡로 2배 이상 늘었다. 랜딩카지노가 7개 가까이 카지노 면적을 확대 이전한데다 공즈카지노(1224㎡→2328㎡), 파라

다이스제주 카지노지점(1383㎡→2756㎡), 제주센카지노(1026㎡→2802㎡), 로얄팔레스카지노(782㎡→1353㎡), 마제스타카지노(1543㎡→2886㎡), 메가릭카지노(861㎡→1528㎡) 등 6개 카지노가 2배 가까이 면적을 늘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행 조례상 카지노 면적이 기존면적의 2배 이상 초과하지 않는 경우 도의회 의견 청취 없이 카지노 면적을 확대할 수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사업자들은 영리한 방법으로 카지노의 일정면적을 다 넓혀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대형카지노로 바뀌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카지노 사업자 입장에서 제주 10%의 관광진흥기금만 내면 도박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카지노 면적이 남아 있는 신화랜드카지노는 앞으로 더 대형화할 것”이라며 “현 제도 아래서는 카지노가 개장전 직원을 채용하고 마을과 협약을 맺으면 변경허가를 내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제주도에서 시급함을 알고 상위법 개정에 앞서 조례를 통해 강력한 규제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카지노 조례 16조항을 삭제해 영업장 이전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 모든 장소변경을 신규허가대상으로 분류하면 이전 사업장을 취득해 변경허가하는 방식의 대형화는 막을 수 있다”며 원희룡 도지사에게 이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원 지사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감 하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카지노 규모의 확장 시 도지사 권한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받았지만 장소 이전 제한 부분은 검토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채해원기자 seawon@ihalla.com



지난 6-9일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진행된 제3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성황리 폐막

6~9일 일산 킨텍스서 진행... 국내외서 대거 참가
야시장 등 다양한 관광정보 관심 끈 제주 인기상

제3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가 국내외 관광객 및 바이어들에게 다채로운 관광콘텐츠를 홍보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부스 운영과 체험 및 이벤트에서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박람회가 선정한 인기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조직위원회와 한라일보 등 지역 언론 10곳은 지난 6-9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2홀에서 ‘여행에 빠지다!’를 주제로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를 개최했다. 박람회에서는 대한민국 17개 시·도

내 지역별 관광명소 및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및 기타 해외여행정보를 한자리에 모았고, 이외에도 다양한 관광관련 콘텐츠와 전시가 마련됐다.

약 453개의 부스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국내외의 다양한 관광콘텐츠 구성과 여행 및 관광과 관련 된 많은 무료 증정 이벤트를 마련하여 평일인 개막 첫날부터 관람 인파가 몰리면서, 행사기간 내내 동안 4만33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에는 부스 운영 및 준비, 제

협 및 이벤트 등의 기준에 따라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최고부스상, 인기상으로 나누어 시상식이 마련됐다. 전체 참가 지자체 광역자치단체 중 제주도는 인기상을 수상했다. 제주도는 해외관광객 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계속적인 관광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박람회 측은 “제주도는 국내 관광객에게 제주도의 천연 관광지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문화와 전통 특색에 맞는 다양하고도 풍부한 관광 자원을 홍보해 국내 대표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러냈다”며 “특히 야시장 등 다양한 관광정보가 관심을 끌며 참가 광역자치단체 중 인기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16th Halla Marathon

2018 제주감귤국제마라톤대회

개최
2018년 11월 11일(일) / 조천운동장

접수기간
2018년 7월 16일(월) ~ 9월 28일(금)

【접수방법】 인터넷접수 <http://marathon.ihalla.com>

【참가비】 풀코스 4만원 / 하프코스 3만원 / 10km 2만5천원 / 5km 2만원

【주최】 (주) 한라일보사, (사) 제주감귤연합회(농협)

【주관】 제주특별자치도육상연맹

【문의】 T. 064-750-2543

입상자 특전

일본 아오모리현 '애플 마라톤' 무료 참가 (항공권, 숙박권 제공)

15~16일 구좌 월정서 제4회 제주발담축제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농어업유산위원회는 오는 15-16일 이틀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제주발담테마공원에서 ‘제주발담축제’를 개최한다.

발담축제 프로그램은 발담을 직접 쌓아 보는 ‘발담쌓기’, ‘발담길 걷기’를 비롯해 ‘굴돌 굴리기’, 발담 푸드 콘테스트, 발담골든벨, 어린이 발담그림그리기대회, 어린이 발담쌓기 경연대회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경연대회별로 소정의 시상금도 지급된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동고랑과 함께하는 ‘발담길 걷기’는 5회로 늘려 참가 기회를 확대했다.

특히 사전 참가신청자에게는 제주 전통 도시락인 ‘동고랑’이 제공되며 참가자들에게는 별도의 기념품이 제공된다. 발담길 걷기 코스는 전체 한 시간 동안 이뤄지며 제주소년과 메멘토, 차스민, 홍조밴드, 더로그 등의 버스킹 공연이 열려 색다른 매력을 전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발담축제 사무국(741-7861)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대로그 기자 bigroad@ihalla.com

메르스 ‘주의’ 격상... 지역 방역대책반 가동 질병관리본부, 본부 내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3년 만에 발생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국내 메르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질병관리본부는 9일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본부 내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으며,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높였다고 밝혔다.

위기경보는 관심(해외 메르스 발생), 주의(해외 메르스 국내 유입), 경계(메르스 국내 제한적 전파), 심각(메

르스 지역사회 또는 전국적 확산) 순으로 격상된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히 협조해 메르스 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 이행과 향후 메르스 진행상황에 따라 중대본 가동 검토 등 범정부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에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격상 사실을 알리고, 모든 시도별로 지역 방역대책반을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8일 쿠웨이트를 방문한 남성(61·서울거주)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국가 지정 격리병상에 격리됐고, 메르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돼 역학조사 및 현장 즉각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는 의심환자 신고 접수 후 인천공항검역소, 서울시등과 함께 항공기 탑승객 등 환자의 접촉자 조사를 실시했으며 검사 결과 확인 후 즉각대응팀이 출동해 환자에 대한 심층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5년 국내에서 메르스 확진자 발생 후 38명이 사망했다. 서울=부미현기자

연동365일의원

진료과목 **내과 / 소아청소년과**

2018년 보건복지부 지정
2015년 부터 4년연속 지정

달빛 어린이병원

주중 평일 아침 9시 ~ 밤 11시까지
토·일·공휴일 밤 12시까지 진료

예약전화 **727-3651**
연중무휴 / 야간진료

우편집중국 신제주
옴슴상호저축은행 대림APT
오일장신문 부림랜드

그랜드 사거리 연북로
신제주 로터리

연동365빌딩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151005-중-77573

도민여러분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성심껏 진료하겠습니다.

연동365일의원